

광주시·전남도, 경제 활성화·민생안정 1조2천억 추경 편성

시,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방점'도, 호우 피해, 백신·방역 지원... 오늘 원포인트 도의회 심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각각 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

광주시는 6233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61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 편성됐다.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복지취약계층 지원, 공공일자리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소상공인지원금 3066억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혜택 지원에 490억원, 지역 공공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에 77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132억원, 긴급 복지지원 118억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15억원 등도 편성됐다.

이밖에 지역 현안 사업인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조성 사업비 27억원, 중앙 상생큐브 조성 30억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편성했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63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20일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4880억 원과 보통교부세 143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호우 피해 지원과 백신·방

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342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소상공인지원금 사업에 3870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계지원비 110억원, 긴급복지지원 71억원 등 362억 원도 포함됐다. 고용안정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440억원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8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비 116억원,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지원 등 244억원이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방역 강화를 위해 140억 원도 편성했다. 백신접종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100억원, 내외국인이 안전하게 전남을 방문하도록 지원하는 관광 방역 등 40억원이다. 호우피해 복구와 도민 안전을 위해 29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건의를 통해 확보한 전북 우량 종묘지원 28억 원, 전북 가두리 그물망 설치지원 17억원이 포함됐다. 폭염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25억원이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소상공인지원금이 최대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적극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평생학습주간 행사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정보와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2021 광주평생학습주간 행사가 19일 오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개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문재인정부, 농어민 홀대 멈추고 농수산 예산 증액을”

전남도의회, 정부에 예산 증액 건의 “기축 전염병·코로나에 농심 피멍”

전남도의회가 2020년 기준 각각 국가 전체 예산의 3%, 1% 수준에 불과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분야 예산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농수산 분야 예산 확대를 멈추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안보를 담보하고 일상적인 기축전염병,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농어촌 인구감소·고령화 가속화에서 비롯된 농어촌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9일 전남도의회는 20일 개최 예정인 제355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앞서 이날 도의원 58명 전체

이름으로 처리할 “2022년도 농수산 분야 정부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공개했다.

도의회는 촉구안에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자료를 보면 각 부처는 2021년도 예산 대비 6.3%가 증가한 593조 2000억원을 요구했다”며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021년도 대비 2000억원이 증가한 22조 9000억원에 그쳐,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6.3%에 비해 0.88%의 턱없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사태와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식량 위기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 배정기준은 ‘농수산 분야 예산 확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도의회는 “농수산 분야 예산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니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9%, 해양수산부는 1.1%대에 그쳤다”며 “특히 농업예산이 매년 쪼그라들고 있어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답답하며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 외식소비 부진, 농수산물 소비 위축, 농어촌 인력난 심화 등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또한 공익직불제 개선, 농수산물 재해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 여성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복지정책 수립 등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주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상기후 현상을 대비한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애 넘어 살기좋은 광주 만들기 최선

이용섭 시장, 농아인 쉼터 등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장애를 넘어 살기 좋은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청각각·언어장애인 쉼터인 ‘농아인 쉼터’와 광주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또 “농아인이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검토중”이라며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여성 농아인 맞춤형 사업추진과 수어교육 확대, 새빛콜 이용방법 개선 등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이 되면 비장애인은 더 행복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배려, 포용, 통합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청각·언어장애 당사자들은 “청각·언어장애 인복지관 건립 등 광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답한 뒤 ▲농아인 쉼터 확대 설치 ▲여성농아인지원센터 설치 ▲새빛콜 수어가능 운전원 배치 ▲수어 교육 및 통역사 배출 ▲청년농아인 일자리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의 이번 방문 지난 17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애인 특별주간’ 행사의 하나로 이뤄졌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4월 농아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각언어장애를 넘어 살기좋은 세상만들기 TF’를 구성하고 맞춤형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농아인쉼터 확대, 수어통역센터 재개설, 수어교실 확대 및 교육원 설치 등의 사업 시행을 논의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

알록달록 남도 가을에서 안심여행 즐기세요

전남도 ‘남도 가을여행’ 발행

전남도가 전남지역의 가을 안심 관광지를 소개한 ‘남도 가을 여행’ 책자를 발행했다. 자연의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느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탁 트인 야외 관광명소들이다.

‘남도 가을 여행’은 울긋불긋 물드는 힐링여행, 여유를 안겨주는 섬여행, 오색빛깔 가득한 섬표 여행, 그리움을 달래는 감성 및 별미여행을 주제로 다양한 관광지, 먹거리 등을 실었다.

힐링 여행지로 담양호와 추월산의 풍경을 안은 담양 금성산성, 아기단풍 천지 장성 백양사, 황금빛 갈대숲이 매력적인 강진만 생태공원과 순천만 습지, 형형색색 국화꽃의 천국 함평 엑스포공원, 새하얀 메밀꽃의 향연지 장흥 선화동마을과 천만송이 들국화로 수놓은 고흥 장수호 힐링정원을 소개했다.

섬 여행지로는 소박한 해당화 정취가 물씬 풍기는 진도 대마도, 항일운동의 성지 푸른빛 바다가 아름다운 완도 소안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이 있는 보성 장도, 원시 자연생태에서 갯바위 낚시의 천국을 느낄 여수 손죽도를 추천했다.

오색빛깔 가득한 ‘섬표 여행’으로 고목의 아름다운 단풍이 가득한 담양 관방제림, 노을빛 메타세쿼이아길 단풍이 반기는 나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고즈넉한 마을을 품은 화순 연둔리 숲정이, 한국 남화의 맥을 잇는 진도 운림산방 등이 제격이다.

전남의 가을 감성을 느껴보는 섬표여행은 폐창고를 아름다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킨 광양예술창고, 한국문학의 거대한 산맥을 만날 수 있는 보성 태백산맥문학관, 시인의 향기가 가득한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즐길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민 서명인 남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폭력은 반복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주세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학교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